

일본 지적장애아(인) 교육·복지의 선구자 이토가카즈오의 청년기사상과 공감사상의 구조에 관한 실증적 연구*

홍정숙**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요약》

본 논문에서는 일본 지적장애아(인) 교육·복지의 선구자 이토가카즈오의 공감사상의 원천을 이루는 것은 청년기사상이라는 관점에서, 이토가의 청년기 사상을 실증적으로 고찰하여 청년기사상과 공감사상의 구조를 구명하였다. 이토가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청년기 사상이 이토가 사상의 원천임을 인식하면서도 그 내용이 실증적으로 구명되지 않았으며, 인물사적인 관점에서도 사상형성의 초기단계부터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독교 신앙, 종교철학적 사색, 기간제 교사로서의 교육실천을 통해 형성된 교육관이라는 세 관점에서 이토가의 청년기사상을 분석하였다. 청년기사상과 공감사상과의 구조를 밝히기 위해 洪淨淑·松矢勝宏·中村滿紀男(2001)의 선행연구의 성과에 근거하여 공감사상을 요약·제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양 사상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토가의 청년기사상과 공감사상 간의 핵심구조로는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 이해, 실천적인 사랑의 중시, 자각과 책임에 관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토가 사상이 우리 특수교육자들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 제언하였다.

주제어 : 이토가카즈오, 청년기사상, 공감사상

I. 서론

이토가카즈오(糸賀一雄, 1914 ~ 1968, 이하 이토가로 기술)는 일본의 장애아교육·복지의 역사 가운데 ‘뛰어난 실천가이자 사상가’ (吉田久一, 1974, 384), ‘지적장애아(인)의 아버지’ (糸賀一雄, 1982a, 京極高宣, 2001) 등으로 불리는 인물이

* 본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jshong@daegu.ac.kr)

다. 이토가는 제2차 세계대전 후의 혼란기인 1946년에 이케다타로우(池田太郎), 타무라이찌지(田村一二)와 함께 전쟁고아와 지적장애아동을 위한 시설 오우미학원(近江學園)을 설립하였다.

이후 이토가는 오우미학원을 출발점으로 하면서 중증심신장애아, 지적장애인 대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에 관여하여 이 길의 선구자로서의 족적을 남겼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을 통해 ‘발달보장’을 비롯해 ‘공감’, ‘자기실현의 교육’, ‘이 아이들을 세상의 빛으로’ 등의 사상을 주창하였으며, 이러한 사상은 일본의 장애아 교육과 복지 실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토가는 시대의 흐름에 따르지 않고 이에 저항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단순한 비판이나 저항이 아닌 오우미학원에서의 진지한 실천과 깊은 사색으로부터 탄생한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납득시키고 움직인 조용한 혁명이었다. 또한 그는 오우미학원이라는 집단 속에 매몰되지 않고, 항상 외부 세계로 열린 자세를 견지하였다. 이는 오우미학원이라는 시설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일본의 장애아교육·복지의 변화를 추구하고 요구하고 활동한 이토가의 사회적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올바른 특수교육·장애인 복지의 실천을 위해서는 그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는 기본적·근원적 토대에 대한 성찰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이토가의 진면목, 그 업적의 비교할 수 없는 독자성은 무엇보다도 종교철학에 뒷받침된 고매한 논리성과 그 사상성에 있다’(糸賀一雄, 1972, 5)¹⁾는 평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수교육·장애인 복지의 근본적 사상에 대한 논리적 추구와 보다 근원적인 이념의 천착에 이토가의 사상연구는 유익한 자료를 제공해 주리라 생각한다.

이토가는 일본 장애아교육·복지의 선구자로 지목되는 교육자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의 사상에 대해 분석한 연구가 전무하다. 일본에서의 이토가에 관한 선행연구는 특수교육 및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사회학의 영역에서도 中山愼吾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있다.

清水寛(1976, 1978, 1991)는 이토가의 대표적인 장애아교육·복지 사상인 ‘발달보장’의 형성과정을 오우미학원의 성립·발달과정과 관련지어 구명하였고, 森博俊(1992)는 사회적응과 자기실현이라는 두 관점을 통해 이토가의 지적장애 아동관을 분석하였다. 그 밖에 이토가의 자립관에 대한 변천을 밝힌 것(星野奈緒美, 1988)과 이토가의 인생관, 장애인관, 사회관을 고찰한 연구(石野美也子, 1994), 그리고 이토가의 지적장애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도달점으로 ‘동심원’ 개념에 관해 검토하여 고찰한 연구(草山太郎, 1995), 이토가의 ‘사회복지사상’과 ‘사회복지론’에 대해 분석한 연구(吉田久一, 1974)가 있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이토가의 ‘공감’ 사상에 관해 고찰한 논문(洪淨淑·松矢勝宏·中村滿紀男, 2001) 및 이토가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 개관하는 서적(京極高宣, 2001; 高谷清, 2005)이 출판되었다.

한편 앞에서 언급한 中山愼吾는 사회복지실천 행위주체의 내면적 동기에 주목하여 ‘사회복지실천의 이미지’를 이토가의 저작에 표현된 이미지를 통해 고찰하였고(中山愼吾, 1993a, 1994), 사회복지 시설사의 관점에서 이토가 저작의 초창기 서술을 분석하였으며(中山愼吾, 1991), 이토가가 품고 있던 사회형성에 관한 이미지에 대해 고찰하였다(中山愼吾, 1993b).

일본에서 현재도 이토가의 독자적인 사상이 높이 평가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²⁾,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는 주로 이토가의 사상연구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이토가의 생애 중 오우미학원을 시작한 1946년 이후를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토가의 장애아교육·복지 사상이 오우미학원에서의 실천을 통해 발전·심화되었던 점에 비춰 볼 때 이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토가의 청년기 프로필로부터 그의 사상적 기반이 청년기인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清水寛(1991)는 이토가 사상에 내재하는 중요한 특질로 ‘종교성·철학성’을 들고 있다. 이토가 사상의 ‘종교성·철학성’의 존재에 관한 선행연구자들의 의견은 일치한다. 이토가는 고교시절 기독교에 입신하여,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였으며 교토제국대학 문학부 철학과에서 종교철학을 전공하여 예리한 철학적 사고력을 배양하였으므로 이토가의 ‘종교성·철학성’은 고교·대학시절에 이미 형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토가는 대학졸업 후 2년간 교토에서 초등학교 기간제교사가 되어, 木村素衛를 중심으로 하는 그룹에 참여하여 인간과 교육에 관한 사상을 심화시켰다(森博俊, 1992, 127).

대표적인 선행연구자들은 이토가의 청년기사상이 이토가사상의 원천임을 인식하고 있으며(예를 들어, 吉田久一, 1974, 384; 清水寛, 1991, 191, 193; 森博俊, 1992, 127), 무엇보다 이토가 자신이 오우미학원 설립 후 10년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자신의 사상이 20대의 그것과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이를 기반으로 원숙해졌다고 고백하고 있다(糸賀一雄, 1982, 325).

이와 같이 볼 때 이토가의 사상형성의 출발점은 청년기이며, 이 사상은 그의 실천의 원동력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토가 사상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사상의 토대인 청년기사상의 내용을 실증적으로 구명하여, 그 후의 사상과의 관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토가의 청년기사상이라는 토양 위에서 그의 장애아교육·복지사상이라는 열매가 맺혔다고 볼 수 있으며, 그 토양과 열매를 함께 파악하는 것은 이토가 사상의 본질을 구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장애가 심해도 “인간의 인격성”이라는 점에서 공감하고, 서로 성장해 가는 것을 모든 실천의 기초에 두고자 하는 “공감사상”’(清水寛, 1991, 213)은 이토가의 독자적인 인간관임과 동시에 ‘발달보장사상’과 함께 이토가 사상의 대표적

사상으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공감사상은 이토가 사상 가운데, 그의 청년기사상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사상으로 여겨진다.

洪淨淑·松矢勝宏·中村滿紀男(2001)는 공감사상이 내포하는 중심개념으로 인간관계관으로서의 공감사상, 공감을 중핵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 그 사회를 형성해 가는 자각자·책임자에 대한 인식을 도출하였고, 공감사상의 근원을 이루는 것이 이토가의 청년기사상이라는 관점에서 부분적으로 공감사상과 청년기사상과의 관련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공감사상의 분석에 주력하였으며, 이토가가 청년기에 저술한 다양한 1차 자료를 구사하여 이토가의 청년기 사상을 실증적으로 제시하는데 이르지 못하였다. 이토가의 청년기는 그 후의 사상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계일 뿐만 아니라(京極高宣, 2001, 84), 인물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사상형성의 초기단계부터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토가 사상, 특히 공감사상의 원천을 이루는 것은 기독교 신앙, 종교철학적 사색, 그리고 기간제 교사로서의 교육실천을 통해 형성된 이토가의 청년기사상이라는 관점에서 청년기사상을 실증적으로 고찰하여 청년기사상과 공감사상의 구조를 구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토가 사상이 우리 특수교육자들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이다. 우선 청년기 사상을 구명하기 위해 이토가의 청년기 문서, 논문 등의 미발표 저술이 보관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대목회(大木會)의 법인본부(일본 시가현 위치) 방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참고문헌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이 중 대부분은 미발표 저술이며 기독교 신앙에 관한 것과 종교철학 관련 논문, 일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 반 이상은 육필(肉筆) 원고로 1차 史料로서 높은 가치를 갖고 있다. 다음으로 공감사상에 대해서는 ‘糸賀一雄著作集(전3권)’(糸賀一雄, 1982a, 1982b, 1983)을 중심으로 하면서, 오우미학원 창립기 이후의 저서와 간행물에 발표된 저술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II. 이토가카즈오의 청년기 사상

1. 이토가카즈오와 기독교

이토가는 松江(마츠에) 고등학교 시절에 마루야마후미오(圓山文雄, 이하 마루야마로 기술)의 영향으로 크리스천이 되었다. 마루야마는 그의 ‘생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糸賀一雄, 1967, 40) 절친한 벗으로 이토가의 글에 종종 등장한다. 이토가

의 청년기사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가 청년시절에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이토가의 사랑에 대한 인식

이토가에게 기독교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실천되는 것’이었다(糸賀一雄, 1935f). 이 같은 신앙의 토대를 가진 이토가는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에 대한 고민을 고교시절의 일기에 풀어놓고 있다.

○월 ○일 친구의 축복을, 진정으로 기도할 수 없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비참하다. 나에게 사랑이 없는 것일까? 나는 인류를 사랑하지만 자신에게 놀랄 때가 있다. 인류를 사랑할수록 개인에 대한 사랑은 적어진다. 사랑이 공상의 날개를 퍼면 어디까지든 날아간다. 하염없이 날아간다. 관념적으로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지. 하지만 한 집에서 단 하루도 살지 못할 정도의 미움 또한 내 안에 공존한다.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진실을 직시하자(糸賀一雄, 1934a, 2-3).

여기서 이토가의 관념적인 사랑에 대한 경계심을 엿볼 수 있다. 그는 구체적인 대상을 향하지 않고 관념적·추상적인 것에 그치는 사랑은 의미가 없음을 성찰하였다. 이 같은 맥락은 마루야마와 관련된 다음의 두 가지 에피소드에도 잘 드러나 있다. 첫 번째는 고교시절 이토가가 신학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을 알게 된 마루야마가 목사님께 그의 고민을 해결해 줄 것을 부탁한 것이다.

며칠 안 되어 매우 바쁜 가운데 있는 목사님께서 깊은 신앙의 편지를 보내셨다. 이 때 나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랑의 실천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 진실한 영혼의 교제는 여기서 생겨난다. 이 교제야말로 신앙에 의한 사랑의 무대다. 친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교제 가운데 살아가고, 함께 수고를 나누는 것 이외에 무엇이겠는가?(1936c).

두 번째로는 대학시절 어느 날 의대생이 된 마루야마를 방문하였을 때, 그에게 들은 이야기를 인상 깊게 적고 있다.

어느 심술궂고 버릇없는 아이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한 이야기에 이르러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여뻤다. “아무리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라도 열심히 사랑하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었어. 하지만 그 아이가 기도해 달라고 조르게 되었을 때 나는 나 자신의 사랑보다도 더 큰 힘이 거기서 일하고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거야.” 침묵하는 그를 보며 그의 내면에 불타고 있는 신앙과 사랑과 그 실천이 그의 인격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나는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1936c).

이와 같이 볼 때 청년기의 이토가는 사랑의 실천을 중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토가에게 ‘사랑’이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을 향해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2) 신과 인간의 인격적 교류로서의 신앙

이토가는 기독교 신앙을 ‘신의 은총과 인간의 결단’에 의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절대적인 신이 약하고 어리석은 인간을 십자가의 극치까지 사랑한 것이 은총이며, 인간이 그의 약함과 어리석음 가운데서도 자아를 부정하고 진정으로 신을 우러르는 것이 결단이라는 것이다(糸賀一雄, 1935a, 1935e). 이토가는 신앙을 신으로부터 주어지는 수동적인 성격과 ‘결단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는 신앙의 신비’(糸賀一雄, 1935e)라 하면서도, 자신의 결단이라는 주체성이 충족될 때 신앙을 갖게 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토가가 말하는 기독교 신앙은 ‘진지한 신앙태도의 알파와 오메가’인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 신과 일대일 관계를 가지면서도 이웃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항상 신 앞에 서서, 이웃에 대해 책임지는 삶의 방식을 요구하는 것이었다(糸賀一雄, 1934c).

한편 이토가는 ‘신앙의 일의적 문제’를 신과의 관계에서 찾고 있다. 이는 정의로운 신 앞에서 자신이 올바른지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과 물음을 동반하는 것이다. 이토가는 이와 같은 신앙의 일의적인 문제를 중시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각 개인이 신과의 관계에 바로 설 때 교회의 교제도 깊어진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신과 자신과의 일대일의 관계를 중시하는 이토가의 신앙 이해가 개인적인 신앙생활로 치우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개인적으로 신을 대망하는 것보다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신을 대망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糸賀一雄, 1936e). 이토가에게서 전자는 신앙의 기본이며, 후자 또한 신앙생활에서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었던 것이다.

3) 종말론적 신앙-신앙과 희망

이토가가 종말론적인 기독교 신앙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그의 졸업논문 주제가 ‘パウロにおける終末の問題(바울에게 있어서의 종말의 문제)’였던 것에서도 추측할 수 있다. 이토가에 의하면 바울의 종말론은 ‘바울 신학 내지 바울 사상의 중심 문제’이며, 이는 ‘신앙과 희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구원의 현재성의 확신이 신앙이라면, 미래 구원의 확신이야말로 희망’이다. 즉 ‘현재의 구원으로 장래 구원의 완성을 확신하고, 그 실현을 의심할 수 없는 희망으로 현재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신앙과 희망이야말로 바울 사상의 본질을 이루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바울의 종말론에 대해 이토가는 ‘미래를 내포한 현재의 기독교 신앙은 신앙인의 현실에 대한 태도를 결정짓는 것’ 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토가에 따르면 이는 ‘현재의 윤리적 태도에 대한 관심’이며, 이 윤리는 자유와 사랑을 원리로 하고 있다(糸賀一雄, 1938a).

이토가가 바울의 종말론이라는 관점을 통해 본 신앙과 희망과의 관계는 미래와 현재, 달리 말하면 역사에 대한 인식이었다. 이토가가 ‘종말적으로 살아간다’ (糸賀一雄記念會, 1970)고 말할 때, 이 같은 역사관이 그 배경에 있었다고 여겨진다. 이 역사관은 이토가가 ‘현실을 극복하고, 고난의 한 가운데서도 “승리하고도 남는” 능력을 경험’ (糸賀一雄, 1938a)케 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이었다 할 수 있다.

2. 인간존재에 대한 종교철학적 고찰

이토가는 대학시절 종교철학을 전공하면서 종교적 사색과 인간존재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켰다. 여기서는 이토가가 대학시절에 인간존재에 대해 고찰을 시도한 대표적인 원고를 분석하여, 청년시절 이토가가 인간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밝히고자 한다.

1) 관심

먼저 이토가가 교토대학교 2학년 재학시절에 쓴 ‘關心’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糸賀一雄, 1936r, 1936s). 이토가는 인간의 본질적 관심은 자신을 향하고 이기적이며, 사람과 사람 간에는 깊은 골이 가로놓여 있다며 이 같은 인간의 모습을 ‘직접적인 자신’으로 표현하고 있다. 인간이 직접성의 세계에 머무는 것은 자신에게 고착하는 것이며 자신만이 절대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토가는 다음과 같이 자문하였다.

모든 것이, 세계가, 네가 나에 대해 아무 관계없는 타자(他者)일 때 나는 과연 무엇일까? 현실을, 그리고 너를 쉽게 보는 이기적인 관념론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너 없이는 나도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너를 어떻게 대하는 지가 나의 진존재를 결정하는 것이다(糸賀一雄, 1936r, 4).

따라서 직접성의 세계에서 자신은 동물이 살고 있는 의미에서의 구체성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토가는 인간이 변증법적 존재이기에 직접성을 부정함으로써 긍정하여, 직접성이 구체적이었던 것보다 더 고차적인 구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직접성의 부정은 직접적인 자신이 죽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이 직접성에서 탈피하여 인격을 가지는 것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사람이 인격으로, 응답과 죄의 관계에까지 자신을 자각할 때, 다시 말해 사람이 사회적·역사적 세계 가운데서 그 존재가 문제된다는 것을 자각할 때, 비로소 진실한 구체성을 획득하게 된다. 사회적·역사적 존재로서 자각하는 자신의 관심은 역시 자신이다. 그러나 이는 직접적 세계에서의 관심이 자신이었던 것과는 본질적으로 차원을 달리하는 것으로 자신이 처한 세계에 대한 응답적 관심인 것이다(糸賀一雄, 1936s, 2-3).

이토가는 ‘응답’ 과 ‘죄’ 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이 원고가 미완성인 관계로 이토가의 인식에 대해 더 이상 분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렇지만 이토가는 다른 원고에서 ‘죄의 관념과 책임의식’ 의 관련성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糸賀一雄, 1939c). 金子晴勇(1992)에 의하면 영어의 Responsibility나 독일어의 Verantwortung는 타인에 대한 ‘응답’ 의 행위를 표현하고 있다. 즉 책임이라는 말은 타인에 대해 응답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응답’ 이라는 것은 상호작용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며, 상대의 물음에 적절하게 내가 응답한다고 하는 간주관적 행위이다.

이와 같이 볼 때 책임이라는 것은 타인에 대한 응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기술한 이토가의 ‘응답’ 과 ‘죄’ 의 문제는 책임의식과 관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응답과 죄의 자각은 자신이 처해 있는 세계에 대해, 그리고 이웃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2) 인격적 실재자-인간존재의 측면적 고찰을 매개로 하여

다음으로는 1937년에 쓰여진 소논문 ‘人格的實在者-人間存在の側面的考察を媒介として’ (糸賀一雄, 1937a)를 통해 이토가의 인간존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논문에서 이토가는 종교 문제를 인간의 현실에 대한 태도를 단서로 고찰하고 있다.

이토가에 의하면 현실의 모든 문제는 인간과 관련된다. 종교 또한 현실에서 ‘인간의 한 존재 방식’ 이므로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토가는 종교를 탐구하는 하나의 단서로 현실에서 인간의 생의 태도(단계)를 ‘직접적’, ‘간접적’, ‘절대적’ 이라는 세 단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우선 직접적 생의 태도란 감성적이며 자의적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향락이 생의 내용이며 목적이다. 여기서 인간은 서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관철을 통해 자기파멸의 길로 달리게 된다. 다음 단계의 간접적 생의 태도에서는 이 같은 투쟁 내지 그 귀결로서의 파멸이 비참하다는 것을 자각한다. 간접적 생의 태도의 계기가 되는 반성은 ‘생의 공동체로서의 문화를 절대적인 것으로 확립시키는 작용’ 을 하며, 문화의 확립에 의해 자신은 직접성에 의한 파멸을 면하게 된다. ‘자신’ 은 문화를 통해 ‘타인’ 과 상호관계를 갖고, 간접적으로 생의 공동체를 영위한다. 이와 같이 문화에

있어서 주체는 타인과 생의 공동체를 갖는다. 그러나 간접적 생의 태도에서는 유한적 현실이라는 상대성 하에 있는 자신이 영원과 절대를 지향하는 모순에 이르게 된다.

마지막으로 절대적 생의 태도는 주체성 측면에서의 진리추구가 아니라 절망이라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자각은 인격의 세계에 처음으로 그 모습을 나타낸다. 인격의 세계는 ‘자신에 대립하여 자신을 초월하는 “타인”, 그와의 생의 공동체’이며, ‘자기와 동등한 실재로서의 타인을 전제로 한다’. 자신과 타인과의 공동이 인격의 본질이며, 이와 같은 공동을 성립시키는 것이 ‘사랑(agape)’인 것이다.

이토가에 따르면 절대적 생의 태도와 관련된 사랑은 실재하는 타인에게 기점을 갖는 agape이며, 직접적 생의 태도의 그것은 epithumia(욕구·물욕), 간접적 생의 태도의 그것은 eros이다. 또한 아가페에서만 사람은 비로소 인격이라 하였다. 그러나 타인의 요구와 아가페에서의 타인 그 자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이토가는 종교의 유형을 끌어내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영원을, 절대를, 신을 ‘자기 안에서’가 아니라 ‘자기 밖에서’ 나아가 인간 밖에서 발견한다. 아니 발견되어지는 것이야말로 절대적 생의 태도인 것이다(糸賀一雄, 1937a, 17).

신 중심의 아가페, 신 중심의 일방적 생의 공동이 현실 가운데 실현될 때, 자신은 신의 상징으로 화하여 새로운 생을 살게 된다. 이 의미는 다음 이토가의 진술에 의해 더욱 명확히 이해된다.

그것은 더 이상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이 말하는’ 언어를 들으면서 ‘내가 말하는’ 것이다. -중략- 구원받은 생은 신의 아가페에 사는 생이며, 이로 인해 비로소 사실적으로는 인간성 그 자체도 흔들림 없는 근거를 갖는다고 말해야 한다(糸賀一雄, 1937a, 20).

3) 인간의 존재근거

‘人間の存在根據(糸賀一雄, 1938f)’는 미완성 원고로 이토가가 대학시절에 쓴 것으로 여겨진다. 이토가는 구체적인 인간존재의 방식을 묻는 것이 자신을 소외한 주지주의(主知主義)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묻는 물음에 수렴된다 하였다. 우선 이토가는 인간의 생의 의미를 죽음의 문제와 관련지어 이해하려 하였다.

이토가에 따르면 ‘인간이란 죽을 수 밖에 없는’ 존재이며, 이 ‘죽음의 자각’은 인간을 ‘자기부인’에 이르게 한다. 죽을 수 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은 자신의 존재근거를 자기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자신의 존재근거가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 근거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이토가의

서술에 서 보기로 하자.

근거가 자기 가운데 없다면 자신이 놓인 기반이야말로 다음으로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반이란 결코 나 혼자만의 기반일 수 없다-중략-나는 내가 놓여있는 세계에서 관계적 존재이다. 나는 내가 ‘놓여 있다’는 의미에 서 세계와 관계를 갖고, 동시에 나와 동일하게 이 세계에 놓여 있는 다른 인격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糸賀一雄, 1938f, 6).

이토가는 자신의 존재근거를 이 ‘관계’에서 찾고 있다. 그는 이 관계의 대상을 ‘나와 너’, ‘나와 세계’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자신은 이러한 관계 위에 서 있다. 다만 이토가는 ‘자기가 다른 이와 관계할 때에 그 관계하는 타인은 단지 주체에 대한 객체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고 하였다. 즉 관계하는 타인은 자신에게 있어 인격적 타인이며 주체적인 존재이다. 그리고 자기가 진정으로 자기인 것은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라고 역설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이토가의 인간존재에 대한 물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물음이었으며, 자신을 철저하게 성찰하는 것으로 인간존재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이토가는 인간관계의 방식을 주체와 주체의 관계에서 오는 인격의 세계에서 추구하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인격적 관계를 통해 진실한 생의 공동이 영위된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생의 공동을 흔들림 없도록 하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교육사명의 자각

청년시절 이토가의 교육관에 대해서는 기간제 교사 시절에 쓴 원고 ‘[確信] について考へたこと’ (糸賀一雄, 1939b)를 주로 참조하여 그 단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이토가는 교육자에게 초점을 맞춰 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자세를 강조하였다. 즉 아동의 질을 묻기 전에 교사 자신의 내면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는 교육을 실천하는 교육자는 그 실천의 기초가 되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토가는 확신의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에 따르면 교육실천에서의 확신은 교육사명의 자각과 통하는 것이다. 이 교육자 측의 자각 내지 확신의 유무가 이토가의 관심사였던 것이다. 또한 그는 부단한 연구, 그 연구에 의한 실천, 그리고 실천의 축적에서 오는 확신을 중시하였다. 한편 청년시절 이토가는 교육과 국가를 관련지어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생각이 빠지기 쉬운 아동의 대상화·객체화의 입장과는 완전히 다른 입장에서 서 있었다.

교육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아동의 눈높이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함께 고민하고’, ‘더불어 살아갈 때’에만 교육은 이루어진다. ‘함께 고민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인격적인 접촉에 대한 마음가짐은 교육자가 부단히 스스로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중략- 아동을 가르치는 교사는 부단히 스스로 학습해야 한다. ‘배우는’ 진정한 자세는 대상에 대한 지식의 축적만이 아니라 자신을 대상에 투입하여 거기서 주체적인 혈육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糸賀一雄, 1939b, 23).

이와 같이 이토가는 교사와 아동이 더불어 배우는 관계, 쌍방의 인격적인 교류를 추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부단히 배우면서 부단히 단련하여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사명을 결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교사들에게 ‘배움’과 ‘헌신’의 각오를 촉구하였던 것이다.

Ⅲ. 청년기사상과 공감사상의 구조

이토가는 상기한 바와 같은 청년기 사상의 기반을 가지고 1946년부터 오우미학원을 무대로 지적장애아동의 교육 및 복지 실천에 임하게 되었다. 오우미학원에서의 실천 가운데 이토가는 구체적인 장애아교육 및 복지 사상을 모색하여 다양한 사상을 탄생시켰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선행연구(洪淨淑·松矢勝宏·中村滿紀男, 2001)에서는 ‘공감’이라는 용어와 관련된 인식에 주목하여, 인간관계관으로서의 공감사상, 공감을 중핵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 그 사회를 형성해 가는 자각자·책임자의 개념을 중심으로 논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공감사상을 간단히 요약·제시한 후, 청년기사상과 공감사상의 구조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1. 공감사상

이토가가 말하는 공감의 세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교감하는 세계·인격적인 교류의 세계를 말한다. 이 세계는 장애인의 문제를 자기 자신의 문제로 삼아 자기 자신과의 대결을 요구하는 세계이며, 함께 성장하는 세계이기도 하다. 그리고 공감사상의 중심에는 ‘대상과 주체의 평등한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이러한 공감사상의 기반에는 ‘사랑’의 인식이 있었는데, 이토가에게 사랑이란 이해되는 것보다 구체적인 대상을 향해 실천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공감사상에 ‘생명’의 개

념을 도입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통성을 주장함으로써 평등한 상호작용으로서의 공감사상의 근거를 제시했다.

이토가는 일관되게 장애인의 문제를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인식하였다. 현실사회는 장애인을 받아들여 하지 않는 차별적이고 공감이 희박한 사회였다. 이런 사회에 대해 이토가는 공감 사상이 뒷받침되고 공감을 중핵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상을 제시하였고, 이 사회를 지향하여 계속 활동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주체를 각각자·책임자로 불렀다. 각각자·책임자는 장애인과 공감의 세계에 눈떠, 현실의 사회변혁 책임을 나눠 갖고자 하는 의식을 갖는 사람이다. 즉 이토가가 이상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 건설의 역할은 각각자·책임자가 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각각자·책임자 의식은 복지사업이나 특수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을 비롯해 사회의 구성원 한 명 한 명에게 요구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공감사상의 근거를 이루는 것이 청년기 사상임을 다음과 같은 양자의 관련성 고찰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2. 이토가의 인간존재에 대한 인식

이토가의 청년시절의 종교철학적 사색은 후에 장애인의 문제를 ‘인간존재’의 문제로 심화시킨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 이토가에게 종교철학적 사색은 인간존재에 대한 물음이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전 생애에 일관되었기 때문이다.

1)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

이토가의 청년기사상과 공감사상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인식한 점이다. 여기서 청년기의 이토가가 인간의 존재근거를 자기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찾고 있었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감사상에서도 이토가는 ‘인간관계 자체가 인간존재의 근거’ (糸賀一雄, 1972, 32)라는 명제로부터 공감의 인식을 이끌어내고 있다.

‘인간의 존재근거’라는 표현상의 공통점뿐만 아니라 이토가의 청년기사상과 공감사상 간에는 내용상의 유사점 또한 분명하다. 즉, 주체-객체가 아닌 주체-주체의 관계로 형성되는 인간관계를 일관되게 강조한 점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이토가는 타인을 자신에 대한 객체로서 인식하는 직접적 내지 간접적 생의 태도를 비판하고 자신과 동등한 실재로서의 타인을 전제로 하는 절대적 생의 태도를 높이 평가하였다. 그리고 관계하는 타인을 주체로 받아들이는 자세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하였다. 이토가는 관계하는 타인을 주체에 대한 객체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주체로서의 인격적 타인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사고는 이토가의 기독교 신앙에도 반영되어 있다. 이토가에 의하면 신앙은 은총으로 주어지는 성격을 갖는 동시에 자신의 주체적 결단을 요하는 것이었다. 즉, 기독교 신앙을 신의 은총과 자신의 의지의 접점으로 보았다. 이토가가 말하는 자신의 결단이라는 것은 신과 교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적극적·주체적으로 한걸음 다가가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토가는 신과 인간의 관계를 주체-수동적인 대상의 관계가 아닌, 인격적 교류가 가능한 주체와 주체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은 공감사상과 어떻게 관련되는 것일까? 종래의 지배적인 장애인관은 장애인을 일방적인 시혜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었다. 이는 장애인과 관계하는 주체에게 맡겨진 대상으로서의 장애인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을 주체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인격적인 인간관계관인 공감의 세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 성장하는 공감의 관계를 강조하는 공감사상은 자신과 동등하게 실재하는 타인을 전제하며, 양자 간에 공감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인을 자기와는 이질적인 존재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감사상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인격적으로 수용하는 상호작용인 이상, 양자는 주체와 주체로서의 관계를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洪淨淑·松矢勝宏·中村滿紀男, 2001). 이토가의 다음과 같은 진술에서도 이러한 인식을 읽을 수 있다.

백치아도, 지체부자유아도 이중삼중 장애를 가진 아동도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느끼는 세계, 의욕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살게 내버려 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은지를 확인하고 대화하고 접촉하고 서로가 더 높은 삶의 방식으로 향상되어 가는 지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糸賀一雄, 1982, 250).

이와 같이 이토가는 아무리 장애가 심한 아동이라도 주체로서 타인과 공감하는 세계를 형성하는 존재라는 점,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지도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2) 내면에 대한 성찰

이토가는 인간존재에 관해 고찰할 때 일관되게 자신을 성찰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배경에는 인간은 타인과 깊게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타인과의 공동 가운데 자신을 확립해 가야 한다는 인식이 존재했다. 즉 주체적인 개개인이 있어야만 생생한 상호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이기에 자신의 자립이 인간관계에서는 선결문제라고 할 수 있다. 청년기의 이토가에게 인간존재를 묻는 것은 자기 자신을 묻는 것이고, 동시에 자신의 내면에 대한 깊은 성찰이

기도 했다.

이러한 인식은 자신과 신과의 일대일의 관계를 중시한 이토가의 신앙태도에도 나타나 있다. 그는 이를 ‘신앙의 일의적 문제’ (糸賀一雄, 1936e)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환언하면 이는 자기의 신앙의 확립이며 전의식·전책임을 갖고 신 앞에 서는 것이었다. 여기서도 신앙인들과 연결되어 신앙생활을 보내기 이전에 자신의 신앙을 우선 문제 삼는 이토가의 태도를 볼 수 있다. 기간제 교사 시절 이토가는 아동의 질을 묻기 전에 교사자신의 내면을 묻고 있었다. 이것이 전제되어야만 이토가는 아동과 ‘함께 수고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인격적인 교류(糸賀一雄, 1965, 282)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청년기의 이토가가 늘 자신의 내면을 깊게 성찰하고 개개인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었다면 공감사상에서도 동일하게 자신의 문제를 묻고 있다. 이토가는 함께 성장하는 공감관계를 중시하였으나 공감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내면적인 변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았다. 이는 ‘가치 없는 존재’로 간주되기 쉬운 장애아의 가치에 눈 떠, 그 가치를 발견해 가는 내면적인 인간의 변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토가는 이 같은 내면적인 변화를 사람들에게 호소했지만 이토가 자신이 누구보다도 자신과의 대결에 엄격하게 임하였다(糸賀一雄, 1968, 253). 공감의 세계는 자기 자신이 전인격적으로 물음 앞에 서는 세계이며, 공감에 근거한 관계성립의 전제로서 자기 자신의 성장, 탈피가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洪淨淑·松矢勝宏·中村滿紀男, 2001).

이 같이 볼 때 이토가는 청년기사상에 있어서도, 공감사상에 있어서도 개개인, 바꿔 말하면 자기 자신의 내면을 물어, 성찰하는 것을 중시하는 입장에 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사랑의 실천 중시의 자세

이토가의 공감사상과 사랑의 인식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토가는 시설운영에서 사랑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한 문제 아동을 위해 노심초사하며 그와 함께 울고 일어날 때 그 순수함 속에 사랑이 실천되고 있는 것이다. 한 명 한 명의 개성을 깊이 성찰하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 수고를 함께 할 때, 그 풍부함 속에 사랑이 실천되고 있는 것이다. 사랑은 관념적이지 않고 실천적이다(糸賀一雄, 1982, 254).

清水寬(1981)가 이 예문에서 이토가의 공감사상의 태동을 감득하고 있듯이, 공감사상 형성과정의 기반에는 사랑의 인식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토가의 청년

기의 사랑에 대한 인식과 그 후의 인식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일까?

먼저 이토가 청년기의 사랑의 인식을 정리해 보면 사랑은 관념적,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의 구체적인 대상을 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실천을 중시하고 있었다. 이토가는 타인과의 인격적 교류는 아가페의 사랑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사랑이란 신이 사랑하는 공동체 성원과의 공존을 생의 불가결한 요소로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한편 이토가는 오우미학원에서의 실천 가운데서도 사랑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사랑을 아는 것과 사랑의 실천을 구별하면서 ‘사랑은 관념적이 아니고 실천적’ 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우리들의 생활이라는 것은 일의 동료로서, 친구로서, 연인으로서, 또 부모와 자녀로서, 서로가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서로 돕는 ‘인간관계’인 것입니다. 우정이라 해도 ‘나는 저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50점 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손발을 움직이고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며 수고도 기쁨도 함께 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10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시간을 그 사람을 위해 할애한다는 것은 제한된 자신의 생명의 일부를 바치는 것입니다(糸賀一雄, 1983, 279).

이토가에게 사랑이란 추상적인 관념이라기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생활 가운데 실천되어야 하는 인간관계를 살리는 적극적인 관계행위였다. 이와 같이 볼 때 이토가의 청년기의 사랑에 대한 인식은 그 후의 이토가 사상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즉 사랑에 관한 이토가의 인식은 관념적인 사랑보다도 실천적인 사랑을 높이 평가하는 자세 가운데 노정되어 있다 할 수 있다.

4. 자각과 책임에 대한 인식

이토가는 자각자·책임자의 활동이 공감을 중핵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의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즉 이토가가 자각자는 책임자라고 할 때 이는 새로운 사회의 형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자각과 책임에 대한 인식은 이토가의 청년기에도 보여 지는데 이는 주로 국가와 관련하여 제시되고 있다. ‘日本の明日のために(糸賀一雄, 1939c)’ 라는 원고에서는 조국과 이웃에 대해 실천적 사랑을 나누고 국가의 방향에 책임의식을 가졌던 선각자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1930년대 후반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불안을 느끼면서도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자각하여 교육자의 입장에서 일본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한편 이토가는 장애인과의 공감의 세계에 자각한 사람들이 장애인을 ‘받아들이려하지 않는’ 사회의 부당한 차별관과 싸워 ‘공감과 연대의 생활감정에 근거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를 구축해 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1983, 327-328). 그는 이러한 사람들을 자각자·책임자로 불렀다. 이토가는 자각한 사람들이 협력하여 새로운 사회를 향하는 운동의 중심이 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토가에게 자각자·책임자는 시설의 직원이나 부모, 나아가서는 사회의 일반인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사회의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연대책임을 가지고, 모두가 함께 새로운 사회를 추구해 가는 것을 촉구하였던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청년기 이토가는 건설적인 국가에 대한 국민 및 교육자의 자각·책임에 관심을 가졌다. 반면 그 후의 자각자·책임자는 새로운 사회건설의 주체로 그들에 의한 사회의 내면적인 변혁을 중시하고 있다. 양자의 차이를 굳이 제시한다면 자각과 책임의 대상이 한편은 국가이며, 다른 한편은 사회로 묘사된 것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가의 관심은 일관되게 자신이 처한 세계로 향하고 있었다. 즉 국가나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동체 사람들이 자각하여, 그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일관되게 생각하였다. 이는 달리 말하면 이토가는 국가나 사회를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의 사고나 작용에 의해 더 좋은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이토가의 장애아교육·복지사상의 근간은 청년기부터 형성되었다는 관점에서 그 청년기사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 사상이 그 후의 이토가의 공감사상과 어떤 연관을 갖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구명한 이토가의 청년기사상과 공감사상에 일관되게 흐르는 인식을 간결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 청년시절 이토가는 인간은 주체와 주체로서의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하는 관계적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공감사상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인격적 교류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인간관계관이다. 이와 같이 이토가의 청년기사상과 공감사상에서 가장 현저한 특징은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인식한 점이다.

둘째, 사랑의 실천 중시의 자세. 이토가는 사랑에 대해 관념적 사랑보다도 실천적인 사랑을 중시하는 입장을 관철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을 향하는 것이었다.

셋째, 자각과 책임에 관한 인식. 일관되게 이토가는 자신이 처한 국가나 사회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 책임을 자각하고 활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다.

이상의 검토와 분석을 통해 이토가 사상, 특히 공감사상은 기독교 신앙, 종교철학적 사색, 그리고 기간제 교사로서의 교육실천을 통해 형성된 이토가의 청년기사상을 배경으로 하여 전개되었음을 밝혔다. 이는 “이토가의 오우미학원은 의학이나 심리학을 학문적 기반으로 했던 일본의 다른 지적장애아 시설과 달리, 철학(또는 종교 철학)을 배경으로 전개되었다”(京極高宣, 2001, 152)는 인식을 실증하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이토가 사상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며 오우미학원에서의 실천과정에서 항상 음미되고, 발전·심화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청년기의 인간에 대한 고찰이 추상적이었던 것에 비해 공감사상에 보여 지는 그것은 중도·중증장애아동인 ‘이 아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생명, 개성 있는 이 아이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인식이었던 것이다(糸賀一雄, 1968, 175). 오우미학원의 아동들이 중도화됨에 따라 이토가 자신의 인간관 또한 변혁을 요구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는 이토가사상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기 사상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 그의 사상이 차례로 원숙해져 갔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석일 것이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이토가의 사상이 우리 (특수)교육자들에게 주는 의미를 청년기사상과 공감사상 간의 핵심구조의 틀 속에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 공감사상이 주체와 주체로서의 인격적 관계 맺음을 중시한 이토가의 청년기 사상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은 학교교육을 통해 형성해야 할 가치관의 중요한 측면을 함의하고 있다. 이토가의 공감사상은 당시의 사회상 속에서 ‘산송장’ (糸賀一雄, 1983, 273)으로 여겨졌던 중증장애아동의 교육을 실천하면서 거둬졌던 이토가의 많은 고민과 사색이 낳은 산물이었다. 주체로서의 인격적 관계 맺음이라는 것은 작게는 사물에서부터 크게는 신의 존재까지 아우를 수 있는 것으로, 의욕과 의지를 갖지 않는 객체로 여겨졌던 중증장애아동을 주체로 승격시킨 공감사상의 토대가 되었다³⁾.

이는 달리 말하면 인간존재의 중요한 근거를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인격적인 관계 맺음과 서로 간의 성장을 강조하는 가치관을 교육을 통해 심어줄 수 있다면 과거와 현재의 역사 속에서 가장 차별의 대상이 되어 온 지적장애인에 대한 태도 또한 이러한 가치관의 큰 틀 속에서 인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 여겨진다. 그런 점에서 다양성과 차이의 수용이라는 큰 틀 속에서 장애학생을 그 대상의 일부로 접근하고자 하는 통합교육(inclusive education)의 철학은 실천 상의 과제에 대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내포한 철학이라 할

수 있겠다.

둘째, 사랑의 실천 중시의 자세. 이토가가 ‘사랑과 공감의 교육’이라는 주제로 행한 생애 마지막 강의에서 ‘사랑이 교육의 본질적인 구조’이며, 사랑과 공감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육의 모습을 ‘운명공동체’(糸賀一雄, 1982, 337)로 칭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청년기부터 만년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던 사랑의 실천 중시의 자세는 기본적으로는 기독교 신앙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토가의 사상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사랑을 그 중요한 기반으로 하면서도 오우미학원에서의 실천과정 속에서 심화되었다는 점이다.

중도지적장애아동에게 생산활동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일반적인 인식에 반해, 이토가는 이들 한 명 한 명이 있는 힘껏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 그 자체를 생산적 생활이라고 규정하였다. 나아가 사회가 중도지적장애아동의 생산적 활동을 깨달음으로써 사회의 가치관을 변혁해 가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였다(糸賀一雄, 1968, 177-178). 이토가의 사상은 실천 가운데 탄생하여 실천의 초석이 되었으며, 한층 성숙된 다음 단계의 실천 속에서 다시금 음미되어 성장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진정한 사상은 고정적이거나 관념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변혁하여 인도해 가는 실천적인 것이라 여겨진다.

적어도 특수교육자들은 각자 실천과 사색 가운데 얻은, 또한 실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자기 나름의 사상을 확립하고 이를 음미, 심화시켜 나가야 하며, 나아가 이를 펼쳐 사회의 의식과 제도, 교육실천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함으로써 다음에서 논의할 자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자각과 책임에 관한 인식. 이토가 사상의 중요한 특질로 자기성찰을 중시한 점을 들 수 있다. 자기성찰을 통한 인간존재 구명의 노력이 그러하였고 교육자의 사명에 있어서도 학생의 학습이 아니라 교사의 부단한 학습과 헌신에 초점을 두었다. 오우미학원에서의 실천에서 ‘자각자는 책임자다’라는 실천사상을 강조할 때도 개인의 내면적 변화를 통한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개개인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관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호적으로 공감하는, 공감을 중핵으로 하는 사회의 추구가 그것이다. 이토가의 이러한 사상은 일견 소극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문제의 해결점을 ‘자기자신과의 대결’(糸賀一雄, 1968, 178-179) 가운데 찾는다는 점에서 가장 적극적인 사상이라 평하고 싶다.

이토가는 지적장애아동교육에 있어 자각자로서의 책임을 담당하는 역할을 강한 영향력의 발휘로써가 아니라 ‘아주 작은 모퉁이를 비추는’(糸賀一雄, 1965, 320) 활동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전 생명을 건 끊임없는 비춤을 이상으로 하는 것이며, 이 실천이 깊게 세계로 통하고, 역사로 이어지는 삶의 방식이라는 신념에 찬 활동인 것이다(糸賀一雄, 1968, 52).

이토가의 인식에 접해 우리 특수교육계가, 더 구체적으로는 필자 자신이 특수교육실천에 대한 회의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특수교사에게 이에서 벗어나 “다시금 길고 조용한 개혁의 길을 걸을 것” (糸賀房, 1969, 52)을 결심하게 하는 원점이 되는 사상을 제시하고 있는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성찰해 볼 일이다.

한편 이토가의 선구자적 책임의식은 상기와 같이 개인적 차원의 진지한 활동을 강조하고 있지만 외부로 향한 활동 또한 중요한 요소로 내포하는 것이었다⁴⁾. 실제로 이토가는 정신박약자복지법(현재, 지적장애자복지법)의 성립, 정신박약자육성회(현재, 지적장애자육성회) 지원, 조기발견·요육시스템 개발 등에 공헌하였다(京極高宣, 2001).

이토가의 예를 통해 본 것 같이 우리들이 각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내면적 성찰을 통한 교육실천과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외부로 향한 활동이 조화로운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토가 자신을 포함한 오우미학원의 직원집단의 실천과 연구의 축적·발전을 매개로 하여 성립한 이토가의 지적장애아교육·복지사상의 전체상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향후과제로 한국 특수교육 선각자들의 특수교육 실천 내용 및 사상을 발굴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을 통해 한국 특수교육의 정체성 확립에 일조하고자 한다.

본 논문 중에 인용된 용어, 문장 등은 당시의 것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1) 이토가 사후에 출판된 이토가 강연집 『愛と共感の教育』(糸賀一雄, 1972)의 편저자인 永杉喜輔·野上芳彦는 강연집 서두에 이토가의 업적에 대해 이와 같이 평가하고 있다.

2) 2008년 9월 19일에서 21일에 걸쳐 개최된 일본특수교육학회에서는 「이토가카즈오 별세 4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이토가의 사상과 업적을 돌아보고, 그의 사상의 현대적 의미를 고찰하는 등 이토가의 사상은 여전히 일본 특수교육계에서 계승해야 할 중요한 사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3) 이토가는 서로 느끼고, 서로 성장하는 인간관계 가운데 장애인이 상대방에게 뭔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생산’으로 받아들였다. 즉 이토가는 ‘종래 생각해 온 대상자와 주체자 간의 give and take를 중증인에게도 give의 기쁨을 알리고, 과거의 take만의 아동복지와 절연하고자 했던 것이 다’ (吉田久一, 1974, 387).

4) “이토가 원장은 아동들을 위한 법이나 제도가 운용되도록 정부나 행정당국에 건의하였고 오우미학원장이나 법인의 임원, 혹은 시설, 학회, 연구회, 부모회 등의 임원 자격으로 정신박약아를 위한 제도의 개선, 시책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 실천에 근거한 검토를 거듭하며 솔직한 의견을 제출했다. 그것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자각하고 있었다” (糸賀一雄記念會, 1970, 429).

참고문헌

- ブーバー (1958). **孤獨と愛-我と汝の問題**. 創文社.
- 石野美也子 (1994). 糸賀一雄, その求めたもの. 仏教大學.
- 糸賀一雄 (1933a). 言行録-その一. 未發表 四〇〇 (原稿用紙, 以下同) ×二.
- 糸賀一雄 (1933b). 言行録-その二, 戦いの祈り. 未發表 四〇〇×三.
- 糸賀一雄 (1933c). 言行録-その三, 斷片. 未發表 四〇〇×四.
- 糸賀一雄 (1933d). 言行録-その四, 己が臍を見つめる者. 未發表 四〇〇×四.
- 糸賀一雄 (1934a). 言行録-その五, 信仰と生活. 未發表 四〇〇×五.
- 糸賀一雄 (1934b). 神の主權の前に編集後記. **城北の燈**. 創刊号 4.
- 糸賀一雄 (1934c). 神語り給ふ編集後記, **城北の燈**, 第二号 3-4.
- 糸賀一雄 (1934d). 病床の日記から一九三四・一一・二七~一二・五 未發表 四〇〇×三.
- 糸賀一雄 (1934e). 十字架の行く編集後記. **城北の燈**. 第四号 4.
- 糸賀一雄 (1934f). 面影に寄す. 未發表 四〇〇×三.
- 糸賀一雄 (1935a). 唯此の一事を務. **城北の燈**. 第五号 3.
- 糸賀一雄 (1935b). 斷想編集後記. **城北の燈**. 第五号 4.
- 糸賀一雄 (1935c). 後輩に遺す言葉. **松江高校友會會報**. 第一八号 3.
- 糸賀一雄 (1935d). 無教會主義に對して. 未發表 四〇〇×六.
- 糸賀一雄 (1935e). 十字架の下なる教會. 未發表 四〇〇×五.
- 糸賀一雄 (1935f). 律法と福音. 未發表 四〇〇×六.
- 糸賀一雄 (1935g). ジャン・クリストフ 未發表 四〇〇×九.
- 糸賀一雄 (1936a). 中勘助 [銀の匙] 未發表 四〇〇×二.
- 糸賀一雄 (1936b). 메레지코프スキー [神々の復活] 未發表 四〇〇×六.
- 糸賀一雄 (1936c). 文雄君の追憶-圓山さんを偲ぶ. **北陸之教壇**. 第六九号 4, 附 1~2 (「圓さんを偲ぶ」として今井新太郎編. 圓山文雄, 北陸之教壇社 108~122, 一二・二・二四に収録).
- 糸賀一雄 (1936d). 神學と宗教哲學及びその二領域の聯關について. 未發表 四〇〇×二五.
- 糸賀一雄 (1936e). われ等の靈魂はエホバを俊望めり (福山教會の夕拝にて). 未發表ノート五.
- 糸賀一雄 (1936f). キリストを依る者 (室町教會祈禱會にて司會を命ぜられて). 未發表ノート四.
- 糸賀一雄 (1936g). 詩篇について (室町教會伝道集會にて). 未發表 便箋三.
- 糸賀一雄 (1936h). 或夜. 未發表 六〇〇×六.
- 糸賀一雄 (1936i). 私(一). 未發表 六〇〇×三.
- 糸賀一雄 (1936j). 神學者(一). 未發表 六〇〇×三.
- 糸賀一雄 (1936k). 土(一) 未發表 六〇〇×三.
- 糸賀一雄 (1936l). 土(二) 未發表 六〇〇×三.
- 糸賀一雄 (1936m). エロス 未發表 六〇〇×一.
- 糸賀一雄 (1936n). 私(二) 未發表 六〇〇×一.
- 糸賀一雄 (1936o). 無題 未發表 六〇〇×一.
- 糸賀一雄 (1936p). 神學者(二) 未發表 六〇〇×一.
- 糸賀一雄 (1936q). 決斷 未發表 六〇〇×四.
- 糸賀一雄 (1936r). 關心(一) 未發表 五〇〇×四.
- 糸賀一雄 (1936s). 關心(二) 未發表 五〇〇×三.
- 糸賀一雄 (1936t). 折にふれて 未發表 四〇〇×一三.

- 糸賀一雄 (1937a). 人格的實在者—人間存在の側面的考察を媒介として(宗教學西谷啓 治助教授 特殊講義論文として提出) 未發表 五〇〇×二二.
- 糸賀一雄 (1937b). パウロとクレメンスの比較(宗教學山谷省吾講師特殊講義論文として提出) 未發表 五〇〇×二四.
- 糸賀一雄 (1937c). 克己 未發表 三〇〇×四.
- 糸賀一雄 (1937d). アルツィバージェフ [サーニン] を讀みて 未發表 六〇〇×六.
- 糸賀一雄 (1937e). 立場の轉換 未發表 五〇〇×一三.
- 糸賀一雄 (1938a). パウロにおける終末の問題(京都帝國大學文學部哲學科宗教學專攻 卒業論文として提出, 題目は『哲學研究』第二三卷第二冊87, 一三・二・一に掲載) 未發表 五〇〇×三三.
- 糸賀一雄 (1938b). 幸福について(一) 未發表 五〇〇×一〇.
- 糸賀一雄 (1938c). 幸福について(二) 未發表 五〇〇×一一.
- 糸賀一雄 (1938d). 헤ーゲルの國家論 未發表 五〇〇×一〇.
- 糸賀一雄 (1938e). 「論語集注」を通して觀たる朱子の思想 未發表 五〇〇×一〇.
- 糸賀一雄 (1938f). 人間の存在根據 未發表 五〇〇×九.
- 糸賀一雄 (1939a). 國家と教會の現實. **開拓者**. 第三四卷第四号11-17.
- 糸賀一雄 (1939b). [確信] について考へたこと. 京都市**教育**第一六卷第六号20-25.
- 糸賀一雄 (1939c). 日本の明日のために—皇紀二千六百年を記念して. 未發表 二〇〇×四六.
- 糸賀一雄 (1955). 精神薄弱兒の職業教育. 光風出版.
- 糸賀一雄 (1965). **この子らを世の光に**. 柏樹社.
- 糸賀一雄 (1967). ある事業家の軌跡—近江學園をめぐる20年. **福祉大學評論**. 第2号.
- 糸賀一雄 (1968). **福祉の思想**. 日本放送出版協會.
- 糸賀一雄 (1972). **愛と共感の教育**. 柏樹社.
- 糸賀一雄 (1982a). **糸賀一雄著作集Ⅰ**. 日本放送出版協會.
- 糸賀一雄 (1982b). **糸賀一雄著作集Ⅱ**. 日本放送出版協會.
- 糸賀一雄 (1983). **糸賀一雄著作集Ⅲ**. 日本放送出版協會.
- 糸賀一雄記念會 (1970). **追想集 糸賀一雄**. 柏樹社.
- 糸賀房編 (1969). **ヨーロッパだより**, 自費出版.
- 近江學園創立50周年記念誌 (1986). 「消シテハナラヌ世ノ光」.
- 星野奈緒美 (1988). 糸賀一雄における自立觀の変遷. 東京學芸大學特殊教育特別專攻科.
- 洪淨淑 (2000). 糸賀一雄の思想研究—青年期思想と共感思想との關連で—. 東京學芸大學大學院 修士論文.
- 洪淨淑, 松矢勝宏, 中村滿紀男 (2001). 糸賀一雄の共感思想に關する考察. **心身障害學研究**, 25, 77-87.
- 金子晴勇 (1992). **人間の内なる社會**. 創文社.
- 草山太郎 (1995). 糸賀一雄の障害者思想に關する研究.
- 京極高宣 (2001). **この子らを世の光に：糸賀一雄の思想と生涯**. NHK出版.
- 森博俊 (1992). 精神薄弱兒教育における子ども把握の視點—糸賀一雄の場合に即して—. **教育學研究**, 46(2).
- 中山慎吾 (1991). 社會福祉實踐における集成的思想—糸賀一雄と近江學園草創期—. **母子研究**, 第11号, 眞生會社會福祉研究所.
- 中山慎吾 (1993a). 社會福祉實踐と社會形成—糸賀一雄の福祉實踐イメージの側面について—. **桐朋學園大學研究紀要**, 第19集.

234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0권 3호)

- 中山愼吾 (1993b). 社會福祉實踐とイメージ 1 : 糸賀一雄の福祉實踐イメージに関する 社會學的考察. **社會學ジャーナル**.
- 中山愼吾 (1994). 社會福祉實踐とイメージ 2 : 糸賀一雄の福祉實踐イメージに関する 社會學的考察. **社會學ジャーナル**.
- 野上芳彦 (1970). 糸賀一雄氏とその思想－日本における心身障害兒教育の先驅者. 京都精華短期大學木野評論.
- 滋賀縣立近江學園 (1996). よのなみかぜはさむくとも－近江學園40年史.
- 清水寬 (1976). 障害兒の發達保障の思想 吉田久一編, **戰後社會福祉の展開**, ドメス出版.
- 清水寬 (1978). 戰後障害者福祉と發達保障. 菅野洋一郎・清水寬編, **障害兒教育の基本問題**, 福村出版.
- 清水寬 (1981). **發達保障思想の形成**. 青木教育叢書.
- 高谷清 (2005). **異質の光：糸賀一雄の魂と思想**. 大月書店.
- 吉田久一 (1974). **社會事業理論の歴史**. 一粒社.

An Empirical Study on the Structure of Thoughts on Adolescence and Thoughts on Sympathy of Itoga Kazuo

Hong, Jeongsuk

Daegu University

<Abstract>

Considering that thoughts on adolescence embodies the origin of thoughts on sympathy of Itoga Kazuo, a harbinger of education and welfare for intellectually disabled children in Japan, this study inquired into Itoga's thoughts on adolescence in order to clarify the structure of thoughts on adolescence and thoughts on sympathy. Although preceding studies on Itoga found out that thoughts on adolescence constituted the origin of Itoga's thoughts, they lacked empirical analysis, so it is highly required to investigate into how he formed his thoughts from its early stage, even from the biographical view of his life. It analyzed his thoughts on adolescence from three viewpoints: understanding of Christianity, perception concerning human existence, and perspective on education. This study summed up the contents of his thoughts on sympathy, which had to be presented in advance to clarify the structure of thoughts on adolescence and thoughts on sympathy, based on the study results of Jeongsuk Hong, Katsuhiro Matsuya, and Makio Nakamura (2001), and the conclusion led to the structure analysis of both thought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re was understanding of human as relation-oriented existence, serious consideration of practicing love, and recognition of self-awareness and responsibility in both thoughts on adolescence and sympathy. At last, this study made suggestions concerning the meaning of Itoga's thoughts for special education teachers.

Key Words

: Itoga Kazuo, thoughts on adolescence, sympathy

논문 접수: 2009. 8. 5 심사 시작: 2009. 8. 7 게재 확정: 2009. 9. 15

